

# 형용사 ‘하-’에 대하여

고 제 설  
(우석대학교)

Koh, Jae-Sol. 1996. On Adjective ‘ha-’. *Linguistics* 4, 25-44. Adjective ‘ha-’ in Korean shows many functions. It was regarded, therefore, as a suffix, bound-adjective, adjective, conjunctive adverb, and pro-verbal element, according to its environment. This paper argues that all of those forms of ‘ha-’ must be regarded as a single morpheme, an adjective,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lexicon. All of those functions are considered to be possible by the lexical property of ‘ha-’, which lacks unique lexical meaning but has only adjectival function. Presupposing generative morphology and syntax, ‘tut ha-’ construction is analyzed to have empty subject ‘e’, which means ‘situation’ roughly. Then the unique status of ‘ha-’ is also analyzed, compared with normal adjectives. To certify the status of adjective ‘ha-’,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onstructions in which ‘ha-’ appears are testified. (Woosuk University)

## 1. 문제 제기

형용사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서의 기능이 있다(‘확하다’, ‘든든하다’, ‘용하다’ 등). 이 경우는 명백한 어근에 결합하므로, 허용(1975) 등에서처럼 접미사로 볼 수도 하다. (나) 부사형 어미나 부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누리하다’, ‘퍼려하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등), 형용사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현희(1985) 등에서 제기된 것인데, 접미사가 부사형 어미에 결합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창섭(1994)에서는 ‘더하다, 덜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등의 ‘하-’를, 선행의 부사와 통사적 수식 관계에 있으므로, 의존 형용사로 보았다. (다) 별로 언급된 일이 없는 듯한데, 접속부사로 쓰이는 ‘하지만, 해서, 하오나, 하면’ 등의 어간 ‘하-’가 있다. 이들의 ‘하-’도 접미사로 볼 수는 없는 데, 접미사에 어미가 결합하여 단어처럼 쓰이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절의 수식을 받는 ‘덧, 만, 법’ 등에 결합하기도 하고(‘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다’, ‘w이 사과는 임금님께서 드실 만하다’,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니?’), 또는 절을 명사화시키는 듯한 ‘-음직’에 결합하기도 한다(‘철수가 밥을 먹었음직하다’). (마) ‘영이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하다.’에

서는 '얼굴도 ... 착하-'를 대신하는 대응언적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이처럼 여러 유형의 요소에 결합하고, 또한 홀로 쓰이기도 하는 '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형태소로 볼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에서처럼 별개의 형태소로 보자니 음성 형식과 의미 내용이 동일한 언어 형식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겠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론적 측면에서, 동일한 형식을 국어의 어휘부에 파생 접미사와 의존 형용사, 그리고 접속부사의 어간 등의 여러 형태소로 기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는 것이다.<sup>1</sup> 이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형태소로 묶자면, 하나의 형태소가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요소에 결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 선행 요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하-'의 자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상의 현상과 이론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은,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이들 모든 '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그것이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치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서로 다른 듯하나, 그 분자 내부의 구성은 H<sub>2</sub>O로서 모두 동일한데, 다만 에너지의 양(온도)에 따라 분자들 사이의 결합의 관계가 달라져 서로 다른 물질인 것처럼 보이듯이, 이들 '하-'도 동일한 형태소가 자신의 의미적 특성과 선행 요소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처럼 기능한다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두 가지 대안과 각각의 문제점

(가)를 중시하는 견해라면 '하-'를 파생 접미사로 보게 된다. 단어로서의 자격이 없는 요소를 어근으로 보고, 이에 결합하였으므로 접미사라는 논리이다. 이 경우 (나, 다, 라, 마)의 예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에서는 '의존적 형용사'를 설정하게 되고, (다, 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라)에서는, '철수가 밥을 먹은 듯', '철수가 밥을 먹었음직' 등을 파생법의 어기로 보아야 하는데, '듯'과 '-음직'을 절을 어근화하는 요소로 보고, 어근 형성 접미사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김창섭 1994). 이처럼 (가)를 중시하여 '하-'를 파생 접미사로

<sup>1</sup>본고의 이론적 배경은 Halle(1973) 이후로 발달한 생성형태론이다. 특히 Lieber(1981)의 permanent lexicon과 Scalise(1984)의 lexicon의 관념을 수용하는데, 그럴 경우 하나의 형태소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여럿으로 나누어 사전에 중복하여 등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사전에 지우게 되는 셈이다.

보는 견해에서는 ‘하-’를 여러 개의 형태소로 쪼개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와 (다, 마)를 중시하면, ‘하-’를 형용사로 보게 된다. 그 경우 (가, 나)를 복합어로<sup>2</sup> 보는 데에 이른적인 어려움은 없다.<sup>3</sup> 문제로 남는 것은 ‘예쁘다, 미덥다, 밝다, 어둡다’ 등등의 전형적인 형용사들은 서술어로 기능하는 반면 \*영이가 하다’에서처럼 ‘하-’는 그러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형용사로 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 마)에서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지, (라)에서처럼 절을 선행시키는 요소들에 결합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1) 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다.

에서의 ‘듯하다’를 형용사로 보면, 선행하는 ‘철수가 밥을 먹은’이 ‘듯’을 수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전체적으로 주어는 없고 서술어만 있는 무주어문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지만, (나, 다, 마)를 중시하여 ‘하-’를 형용사로 다루어도 (1)은 역시 무주어문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다 - 마)에 있다. ‘하-’를 접미사로만 보아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고, 단어로 보고자 해도 이상한 현상이 있으며, 또한 접속사로 쓰이는 ‘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모두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을 위해 우리는 (라)의 예들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 3. 의존명사 ‘듯’

(2) (가)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신 듯하다.

(나) \*아버님께서 진지를 먹은 듯하다.

(다) \*아버님께서 진지를 먹은 듯하시다.

(라)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신 듯하시다.

<sup>2</sup>본고에서의 술어의 사용은, 단어를 쪼개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합성어를 복합어와 파생어로 나누는 체계를 따른다. 합성어라는 술어는 복합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그 양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 사용한다.

<sup>3</sup>허용(1975:86)에서도, “이름씨나 어제씨에 [~하다]가 붙은 말들은 모두 합성어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서, “분명한 파생어, 「ㄹ듯하다, 당당하다, 거머하다, 누러하다」 따위 말들과의 동형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하다」 형에 속하는 풀이씨는 모두 파생어로 다루었다.”고 하였는데, 어근과 어근의 복합어도 가능하므로, 굳이 파생어로 보지 않더라도 된다.

(1)의 문장에서 ‘철수’와 ‘밥’이, ‘똥하다’가 아니라 ‘먹-’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음은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가)의 ‘똥하-’에 ‘-시-’가 결합하지 않고도 적격하게 되는 것은 ‘아버님’과 ‘진지’가 동사 ‘들-’의 주어와 목적어임을 보여준다. (2나, 다)가 부적격한 것은 ‘똥하-’가 ‘아버님’이나 ‘진지’의 서술어가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2라)는, ‘-시-’가 두 번 실현된 것으로, 부적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좋고도 자연스런 문장은 아니다.

(2)에서 보이는 경어법의 현상들 외에도 (1)의 ‘-은’은 명백한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철수가 밥을 먹은’까지는 ‘똥’을 수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1)은 대략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3) [[[철수가 밥을 먹-]vp -은]det 똥]? 하다.

(3)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첫째, ‘똥’의 자격이 무엇인가, 둘째, ‘하다’는 무엇인가, 셋째, ‘똥하다’가 하나의 어휘적 단위인가, 아닌가이다. 이들 세 의문은 서로 관련되는 것인데, 첫째 의문부터 보자.

‘똥’은 ‘철수가 밥을 먹은’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적인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의 문제점 한 가지는 그것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것, 바’ 등의 의존명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의존명사가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가) [철수가 밥을 먹은 것]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철수가 밥을 먹은 것]을 몰랐다.

(나) 나는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다.

과분한 칭찬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일이 꼬여서 [어쩔 수]를 모르겠다.

\*[네가 그럴 수]를 아무도 몰랐다.

(라) 나는 [네가 그럴 줄]을 알고 있었다.

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네가 그런 줄]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마) \* [철수가 밥을 먹은 똥]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나는 [철수가 밥을 먹은 똥]을 알았다.

(4가, 나)의 ‘것’, ‘바’ 등의 의존명사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 모두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4다)의 ‘수’는 목적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4라)의 ‘줄’은

과거에는 주어로 기능할 수 있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의존명사가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주어와 목적어 모두의 기능이 가능하고('것, 바' 등), 어떤 것들은 한 가지로만 가능하고('수, 줄' 등), 또 다른 어떤 것들은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듯, 성, 만' 등). 이와 같은 우리의 견해는 김창섭(1994)에서 '듯'을 어근 형성 접미사로 본 것과는 조금 다르다. 거기에서는 '하-'를 접미사로 보았으므로, 당연히 '듯'은 어근형성 접미사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의 문제점은, '듯'과 유사한 다른 의존형식들(즉, '성, 만, 밥' 등)도 모두 어근 형성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모두 '절 + 관형사형 어미'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 '하-'나 그와 유사한 다른 형식들을 후행시키는데, 어근 형성 접미사로 보기에겐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듯'을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지 못하는 의존명사로<sup>5</sup> 보고자 한다. 그러면 (3)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5) [[[[철수가 밥을 먹-]vp -은]det 듯]np 하다]

(6) [e [[[[철수가 밥을 먹은]det 듯]np 하다]]

(5)에서 문제는 '듯'이 '하-'의 주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격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하-'는 홀로 서술어로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5)의 [ ... 듯]np이 서술 성분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주어문의 가능성 여부인데,<sup>6</sup> 안명철(1983)에서 제기되고 임흥빈(1985)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공범주 주어'를 상정하면 무주어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5)는 (6)처럼 된다. (6)에서 공범주 주어 'e'는 음성 형식은 '0'이고, 의미는 '상황'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6)이

<sup>5</sup>의존명사들이 어떤 조사들과 통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영근(1970) 참조. "주로 특수조사와만 통합되는" 형식명사로 '대로, 듯, 만, 만큼, 뻔, 법, 상'의 7개를 들고 있다(44쪽).

<sup>6</sup>'듯'은 매우 특이한데,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다.'에서는 어근 형성 접미사로 보아야 할 듯도 하나, '조자룡이 흰 칼 쓰듯 마구 휘두르다.', '이잡듯 살살이 뒤져라.' 등에서는 다시 선행절이나 단어를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므로 어근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잠정적'이라고 한 것인데, 물론 '성, 만, 밥'과의 통사상에서의 평행성을 고려해서이다. '법'은 '그런 법이 어디 있니?'에서 분명한 주어로 기능하고, '성'은 본고의 (8)에서처럼 '싫-', '부르-' 등과도 연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부르-'는 접미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sup>6</sup>이 문제는 '하-'를 접미사로 보아 '듯하다' 전체를 파생 형용사로 보아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 30 고 제 설

타당함은 (7)에서 확인된다.

(7) (가) [e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시-] -ㄴ] 듯] 하다.]

(나) \*e [[[아버님께서 진지를 먹-] -은] 듯] 하시다.]

(7)에서, 공범주 주어 'e'는 '아버님'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상황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주어적 요소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상황' 자체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하-'에 '-시-'가 결합하지 않은 (7가)와 '-시-'가 결합한 (7나)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와 같은 공범주 주어의 상정은, '듯'뿐 아니라 '만, 법, 성' 등의 요소에도 해당된다.

(8) (가) 지금쯤이면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실 만하다.

(나) 아버님께서 집에 오셨을 법하다.

(다)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실 성 싶니?

(라)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8가 - 다)에서의 '하-'의 주어가 '아버님'일 수 없음은 (7)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따라서 이들 구조에도 '상황'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공범주 주어를 상정해야 한다. (8다, 라)에서는, 의존명사 '성'에는 '하-'가 아니라 '싶-'이나 '부르-' 등의 요소가 연합관계를 이루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것은, (1)의 '듯'을 어근형성 접미사로 보면, 그와 평행한 관계에 있는 (8가, 나)의 '만, 법'을 또한 어근형성 접미사로 보아야 하고, 다시 그와 평행한 관계에 있는 (8다, 라)의 '성'을 어근형성 접미사로 보아야 하며, 다시 그에 후접하는 '싶-', '부르-' 등도 '하-'와 평행하게 접미사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매우 곤란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듯, 만, 법, 성' 모두를 의존명사로 보고, '하-'도 형용사적인 어떤 단위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공범주 주어의 상정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문법성의 차이와,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9) (가) e [철수가 밥을 먹은 듯] 하다.

(나) 철수가 (休止) [[e 밥을 먹-] -은 듯] 하다.

(다) 밥이 (휴지) [[철수가 e 먹-] -은 듯] 하다.

(라) \*e (휴지) 밥이 [[철수가 e 먹-] -은 듯] 하다.

(마) e (휴지) [[밥을 철수가 먹-] -은 듯] 하다.

(바) e [[밥을 (휴지) 철수가 먹-] -은 듯] 하다.

공범주 주어를 상정하면, '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다.'의 주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상황'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공범주어이고, 또 하나는 그 공범주 주어가 '철수'와 동일한 지시내용을 갖는 경우이다. 전자는 곧 '상황'에 대한 언급이고, 그 때에 '철수가'와 '밥을'의 사이에는 '休止'가 개입하지 않는다(9가). 후자는 '철수'에 대한 언급이고, 그 때에는 '철수가'와 '밥을' 사이에 '휴지'가 개입한다. 즉, (9나)처럼 되는 것이다.<sup>7</sup> 이처럼 해석할 때에, (9다)와 (9라)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9다)는 '밥'이 '[[철수가 ... 듯하다'의 주어로 나타나, 문장 전체로는 '밥'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고, '먹-'의 목적어 자리에는 그 '밥'과 동일지시적인 공범주가 남은 것이다. (9라)는 '상황'이라는 공범주 주어가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장에, 다시 '밥'이 주어로 실현되고, 그와 동일지시적인 목적어가 e로 남은 것인데, (9다)와는 달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9마)는, 단지 절 내부에서의 어순재배치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며, '휴지'가 개입한 (9바)도 그렇게만 해석된다.

이런 어감의 차이는 강세의 차이로도 또한 검증된다. (9가)에서는 '철수'가 강세를 받지 않으나, (9나)에서는 강세를 받으며, (9다)에서는 '밥'에 강세가 놓이나, (9라)에서는 '밥'에 강세가 놓일 수 없고, (9마, 바)에서는 강조를 위하여 어순재배치된 '밥을'에 다시 강세를 두어도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6)의 구조는 부정문과 반복에 의한 강조 구문에서도 지지된다.

(10) (가) \*안 [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다].

(나) ?e [철수가 밥을 먹은 듯] 안 하다.

(다) e [영이가 예쁘기]는 하다.

(라) 영이가 [ e 예쁘기]는 하다.

(마) \*e [영이가 예쁘기]는 예쁘다.

(바) 영이가 [예쁘기는 예쁘다].

<sup>7</sup>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본 (2라)가 이상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그것(아래 (1))은 (2)와 (3)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2)의 구조로 해석하여 그 'e'가 '아버님'과 동일지시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적격된 문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3)의 구조로 해석하면 'e'를 '-시-'로써 높이는 것이 부당하므로 부적격한 문장으로 이해되는데, (2)의 해석과 (3)의 해석의 간섭 작용으로 (1)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1)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신 듯 하시다.

(2) [아버님께서 [ e 진지를 드신] 듯 하시다.]

(3) \*[ e [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신] 듯 하시다.]

부정사 '아니'는 서술어에 가장 근접하여 실현되는 부사인데, '덧하다'의 '덧'을 어근형성 접미사로 보고 '하-'를 접미사로 보아서는, (10가)가 부적격하고, (10나)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나 수용성이 (10가)보다 나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 (10나)가 완전히 부적격하지는 않은데, 이로써 [... 덧]과 '하-'가 어근과 접미사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어근과 접미사의 관계로 보려면 '아니'를 접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국어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10다 -바)는 '덧'과 비슷하게 '-기'로써 명사화된 절들이 내포될 때의 모습이다. (10다)는 'e'를 '상황'의 의미로 해석하면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10라)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영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면, 적격하다. 그러나 (10마)는, 'e'를 '상황'으로 해석하면, 부적격하다. '상황'이 예쁘다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10바)는 물론 적격한데, 그것은 '상황'이라는 공주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단지 서술어를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영이가'와 '[예쁘기는 예쁘다]' 사이에 반드시 휴지가 개입하는 것도 우리의 분석을 지지해 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은 '덧하다'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없게 한다. '덧'을 의존명사로, '하-'를 '덧'과는 독립된 단어로 보아야 (7 - 10)의 사실들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 4. 형용사의 어간 구조와 '하-'

(11) (가) 영이가 예쁘다.

(나) [영이가 예쁜 덧]하다.

(다)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예쁘신 덧]하다.

(11가)는 전형적인 형용사문으로, 주어는 '영이'이고, 서술어는 형용사 '예쁘-'이다. (11나)는 (1)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이'는 '예쁘-'의 주어이며, '하-'의 주어는 생략된 공범주 주어 'e'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11다)가 적격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1가)와 (11나)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데, 의미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가 단지 '영이가 예쁘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영이가 예쁘다'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다. 즉, 전자가 어떤 사물('영이')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반면, 후자는 어떤 명제적 성격을 갖는 사실('영이가 예쁘-')에 대한 추측이라는 것이다. '추측'의 의미는 '덧'의 고유한 어휘적 의미이다.<sup>8</sup>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는 '덧'에는 전형

<sup>8</sup> 의존명사는 늘상 관형사형의 수식을 요구한다('이것, 그것' 등에서는 관형사와 직



적으로 형용사 '하-'가 결합되는데(물론 '싶-'이 결합되기도 한다. '싶-'은 자체적으로도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듯'의 추측의 의미와 공기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형용사는 그 어간을 다음 (12가)처럼 분석해서 볼 수 있다. 형용사(내지는 용언)의 어간을 분석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박승빈(1935)에서 시작된 것으로, '하-'는 형용사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는 갖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의 이런 의미적 특징은 이미 두루 알려진 것인데,<sup>9</sup> '예쁘-'와 비교하면, 다음 (12나, 다)처럼 설명할 수 있다.

- (12) (가) 형용사 어간 = 어휘적 의미 + 형용사 기능  
 (나) '예쁘-' = 어휘적의미(美) + 형용사 기능  
 (다) '하-' = \* + 형용사 기능  
 (13) '예쁘+듯+하-' = 美 + 추측 + 형용사 기능

즉, 전형적인 형용사들('예쁘-, 미덥-, 길-, 가늘-, 크-, 둥글-' 등)은 그 어간에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와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나, '하-'는 형용사로서의 기능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홀로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칠수가 하다.', \*'영이가 하다.'). 선행하는 요소를 요구하며, 그 선행하는 요소(가령, '착'이나 '조용')의 의미가 '착하다, 조용하다' 등의 어휘적 의미가 된다. 이 때의 '하-'는 단지 선행 어근을 형용사로 기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할 뿐 자체로는 아무런 어휘적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13)에서의 '하-'의 기능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예쁘-'까지로 이루어지는 명제에 '듯'이 결합하여 그 명제에 대한 추측의 의미가 형성되고, '하-'는 그 추측되는 명제 내용 전체를 어휘적 의미(어간의 일부)로 하여, 여기에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상은 (3)에서 제기된 둘째 의문에 대한 것인데, 그 세계 의문에 대한 답은 절로 나온다. 즉, '듯하다'는 하나의 어휘적 단위와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하-'의 주어는 공범주 'e'이며, '듯'은 선행절과 함께 '하-'의 어간의 일부를 이룰 뿐, 자체로 '하-'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

접 결합하여 대명사로 화석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듯'은 추측의 의미를 갖는데, 추측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 등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 명제적 내용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늘상 절이나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듯'에는 늘상 절이나 문장이 선행요소로 실현되어야 한다.

<sup>9</sup>심재기(1982)와, 동사에 대한 것은 특히 고재설(1987) 참조.

## 5. ‘하-’의 기능 설명

이상에서 우리는 ‘하-’를 어휘적 의미는 지니지 않고, 형용사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단어적 요소로 보았다. 곧 어떤 대상(theme)의 상태를 진술하긴 하나, 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가 홀로 서술어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행 문맥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선행 요소로 하여 접속사나 또는 다른 용법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 5.1 단어 형성

(14) (가) 착하다, 용하다, 참하다 등.

(나) 누러하다, 이러하다, 가느다라하다, 그만하다, 더하다, 못하다 등.

(다) 비릿하다, 거뭇하다, 느릿느릿하다 등.

(라) 알팍하다, 넘적하다, 납작하다 등.

(마) 뗏하다.

단어 형성에서의 ‘하-’의 선행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14가)에서는 그것이 명백히 어근으로, ‘하-’를 접미사로 여기게 했던 예들이다. (14나)에서의 ‘하-’는 부사형 어미 뒤에(누러하다, 피러하다, 거머하다 등) 또는 파생부사나 복합부사 뒤에(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러저러하다, 그러그러하다 등), 또는 부사 뒤에(이만하다, 저만하다, 그만하다, 더하다, 덜하다, 못하다 등) 결합하였다. (14다)에서는 선행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도 ‘느릿하다, 흐릿하다, 노릿하다’ 등과, ‘거뭇하다, 파릇하다, 발긋발긋하다, 울긋불긋하다’ 등 많이 추가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선행의 성분이 첩어로 된 것은 아마도 (14나)의 예들처럼 부사로 보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비릿하다’ 유형의 ‘-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비릿’이 부사도 아니므로(따라서 ‘-스’이 부사파생 접미사일 수 없다.) 어근으로 본다면 ‘-스’은 어근 형성 접미사가 될 것인데, 그러면 (14라)의 예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진다. (14라)에도 물론 많은 다른 예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짹따하다, 늘그막하다, 질퍽하다, 야트막하다’ 등등과 ‘등글넙적하다, 묵직하다, 높직하다’ 등등) 이들 ‘-악/억’류와 ‘-작/적’류, 또는 ‘-직’류 등은 모두 명사파생 접미사인 것이다(이승녕 1981).

특히 흥미로운 것은 (14마)의 ‘뗏하다’인데, 다음을 보자.

- (15) 그런 사정은 내가 말하기 뭇하니 자네가 대신 해 주게나.  
 놓고 지내기가 뭇하면, 장사라도 하려무나.

여기서의 ‘뭇하다’의 ‘뭇(무엇/뭘)’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르거나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와 기능의 분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와 ‘갈-’(“그저 참 일이 뭇같이 됐구나.”) 이외의 형용사에는 이런 방식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데, (12가)에서 본 것처럼, 그 어간에 어떤 독특한 어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는 어휘적 의미가 없으므로, 때로는 위의 ‘뭇/무엇/무어’처럼 특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요소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달리 보면, 의미 내용이 불확실한 ‘어떤 것’이라도 결합해야 형용사로서의 어간의 기능이 완결되는 ‘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4가 - 라)의 예들은 그 ‘어떤 것’ 또는 어휘적 의미의 부분에 여러 요소들이 결합한 것이다. 이상의 예들에서 ‘하-’가 홀로 형용사로 쓰이지 못하고, 선행 성분을 반드시 가져야 함과 그 선행 요소의 형태적 자격이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논리로는, ‘하-’가 홀로 쓰일 수는 없으나, 대신에 그 어휘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만큼 다양한 요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를 갖는 형식들은 자신의 의미와 모순되는(또는 의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들과는 결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단어 형성에서도 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를 접미사로 볼 경우 (14)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으나 특히 ‘뭇하다’ 따위를 설명하기 힘들다.” ‘-스’의 자격이 무엇인가도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하-’를 형용사로 보면, 이런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하-’를 의미 내용이 없는 어근이라고 보더라도,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는 예는 많이 있으므로, (14)의 모든 예들을 복합어로 보는 데에 이론적인 난점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sup>10</sup>동사 ‘하-’와 형용사 ‘하-’를 구분해 주는 것도 ‘뭇하다’이다. ‘하-’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그 선행의 ‘무엇’이 목적어로 해석되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어간의 일부로 해석된다. 두 경우의 ‘무엇’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 결국 형용사 ‘하-’와 동사 ‘하-’의 기능의 차이 때문에 ‘뭇하다’가 형용사와 동사구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게 된다.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아래 (1)과 (2)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과 순서에는 차이가 없으나, ‘하-’의 기능에 따라 각각 동사문과 형용사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 (1) 자네 요즘 뭇 하나?  
 (2) 자네 요즘 (좀) 뭇해!

다만 문제는 (14가)와 (14)의 다른 예들 사이에는 뒤에서 볼 것처럼 ‘어근 분리’ 현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14가)를 어휘부에서 형성된 복합어로 보고, 나머지를 통사부에서 형성된 복합어로 보면, 그런 현상의 차이는 설명될 수 있다.

## 5.2 ‘-음직하-’와 ‘목적하-’

(16) (가) 밥이 먹음직하다.

(나) 철수가 밥을 먹었음직하다.

(다) 가방이 목적하다.

(가)는 누구나 형용사문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가)와 조금 다른데, ‘철수가 밥을 먹었-’이 명백한 절적 성분이므로, 거기에 결합한 ‘-음직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가)를 보자. ‘먹-’은 전형적인 타동사로서 주어와 목적어를 하위범주화하는데, 주어만 실현된 (가)가 적격한 것은 그 ‘-음’이 명사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줄고(1994)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접미사를 어휘부에서 결합하는 것과 통사부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나누고, 어휘부에서 결합하는 접미사는 동사 어간의 하위범주화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보면, (가)의 ‘먹음’은 파생명사가 된다. 여기에 결합한 ‘-직’을 어떤 상황의 ‘가치’나 ‘가능’을 나타내는 접미사 또는 어근으로 보면, ‘먹음직’은 ‘먹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하-’는 그런 요소에 결합하여 (마치 ‘착하다’처럼) 형용사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음’은 어휘부에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부에서도 결합한다. 그 때에는 (보통은 동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인데) ‘먹-’같은 타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논항들이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의 ‘철수’와 ‘밥’은 ‘먹-’의 주어와 목적어일 뿐, ‘하-’와는 무관하게 된다.<sup>11</sup> 즉, 다음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17) (가) [[[철수가 밥을 먹었-] -음직]np 하다]

(나) [ e [[철수가 밥을 먹었-] -음직]np 하다]

(6) [e [[[철수가 밥을 먹은]det 듯]np 하다]]

<sup>11</sup> ‘책이 읽음직하다’와 ‘\*책이 읽으심직하다’의 대비에서, ‘-시-’의 유무에 따라 적격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써 그 ‘-음직하-’가 어휘부에서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철수가 밥을 먹었음직하다’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 진지를 드셨음직하다’와 ‘\*아버님께서 진지를 먹었음직하시다’를 보면 ‘철수’와 ‘밥’을 ‘먹-’이 하위범주화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물론 ‘책이 아버님께서 읽으심직하다’, ‘진지가 아버님께서 드심직하다’의 구성들은 (9)에서 본 것처럼 결국 (16나)와 같은 구성이 된다.

(17가)에도 '하-'의 주어는 없으므로, '상황'을 가리키는 공범주 주어를 상정하면, (17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본 (6)과 동일한 구조이다. 두 문장은 물론 의미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듯'이 추측을 나타내는데, '-직'이 그와 비슷한 '가치'나 '가능'을 나타낸다고 보면, (17나)와 (6)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언어형식들이 동일한 구조로 결합하였다고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6가, 나)의 '하-'들은 모두 형용사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16다)의 '묵직하-'도 그 '-직'을 (16가)의 '-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sup>12</sup> '하-'를 '-움직하-'의 '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3 접속사

- (18) (가) 나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 나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해서, 지금은 배가 부르다.  
 (다) 나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하기가야/하긴, 배가 많이 고파  
 으니까.  
 (라) 나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한테/헌데, 너는 얼마나 먹었  
 느냐?  
 (마) 그 일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하오나/하나, 제 잘못은 아  
 닙니다.  
 (바) 그 일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허면, 누구의 잘못이란 말  
 이냐?<sup>13</sup>

위의 예들은 접속부사로 쓰이는 '하-'의 굴절형들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들 '하-'도 형용사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하-' 유형의 접속부사는 위의 예들에서처럼 선행의 어떤 문맥을 전제해야 쓰일 수 있는데, 그

<sup>12</sup> '담이 높직하다', '길이 넓직하다'의 '-직'은 형용사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볼 수 있으나, 동사에 결합하는 '-움직하-'는 보통은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두 '-직'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자 하는데,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움'이 심계기(1982)에서처럼 [+실체성]과 [+결정성] 또는 [+완료성]을 갖는다면, 결국 '동사 + -움'이 형용사의 어간과 비슷하게 상태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뒤에 결합하는 '-직'은 원래부터 상태성을 갖는 형용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up>13</sup> 이희승(1961)에는 '하지만'은 부사로, '하기가야(하긴)'은 접속사로, '하나'는 '그러하나'의 준말로서의 접속사로 실렸고, '해서, 한테, 하면'은 실리지 않았다. 한글학회(1992)에는 '하지만, 하기가야(하긴)'은 부사로, '한테'는 '그러한테'의 준말로, '하나'는 '그러하나'의 준말로 실렸고, '해서, 하면'은 실리지 않았다.

전제된 내용이 ‘하-’의 선행성분처럼 해석된다는 것이다. 선행의 문맥이 없으면, ‘하지만’, ‘해서’, ‘하기야’ 등등의 접속사는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접속사적 용법도 결국은 어휘적 의미가 없는 형용사 ‘하-’의 특성 때문이다. 그 앞에 무엇인가가 결합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하-’의 특성이, 여기서는 ‘선행 문맥의 내용’을 선행 성분으로 하여, 계속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이 접속부사들의 형식이 형용사 ‘하-’의 굴절 형식과 동일한 점도 우연일 수 없다. 현재의 사전에 실려 있는 대로 이들 각각을 부사로 보면, 이런 현상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하-’를 접미사로 보아도 그것이 (18)에서처럼 접속부사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하-’를 형용사로 보면, 그것이 (18)에서처럼 접속부사로 사용되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18)에 제시되지 않은 ‘한즉’도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여기서도 그 후행의 ‘즉’이 ‘則’이라고 보면, 선행의 ‘한’이 무엇인가가 다시 문제되는데, ‘하-’를 형용사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선행 문맥을 선행 요소로 하는 ‘하-’의 관형사형이 ‘則’을 수식하는 셈이고, 그 구성 전체가 화석화되어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5.4 등위접속

(19) (가) \*영이가 [착·용]하다.

(나) 영이가 [건강·침착]하다.

(다) e [영이가 예쁜 듯, 철수가 똑똑한 듯] 하다.

(19가)는 ‘착하다’, ‘용하다’가 어휘부에서 형성된 복합어임을 보여준다. 그런 복합어들은 (‘선배·후배’는 ‘선·후배’로 줄일 수 있지만) 대체로 ‘선생·학생’이 \*‘선·학생’으로 동일 요소를 생략하며 축약될 수 없듯이 ‘착하고 용하-’를 \*‘착·용하-’로 축약할 수 없다. (19다)는 자연스러운데, ‘e [영이가 예쁜 듯] 하다’와 ‘e [철수가 똑똑한 듯] 하다’의 두 문장에서 ‘[...]’ 부분이 서술어의 일부라고 보면, 공통되는 ‘e’와 ‘하-’를 생략시키며 접속시켜 적격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19나)도 (19다)와 같은 방식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20)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착하다.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학생이다.

\*영이가 착하고, 순이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 떡을 먹었다.

- (다) 철수가 밥을 먹고, 떡을 먹은 듯하다.
- (라)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떡을 먹은 듯하다.
- (마) 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고, 영이가 떡을 먹은 듯하다.
- (바) \*영이가 예쁜 듯하고, 철수가 떡을 먹었다.

(20가)에서 보듯이, 문장 안에 다른 수식 성분이 없는 경우,<sup>14</sup> 동사문과 형용사문, 동사문과 명사문, 또는 형용사문과 명사문 등의 서술어의 성격이 다른 문장들 사이에는 등위접속이 성립하지 못한다. 동일한 유형의 문장들 사이에만 등위접속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20나)에서 보듯이, 동일한 유형의 문장들에서는 동일 성분(‘철수’)을 생략하면서 접속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다)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장을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철수가 밥을 먹은 듯하다’가 접속된 것으로 보아서는 (20가)에서 보이는 현상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20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 e [[[철수가 밥을 먹고], [(철수가) 떡을 먹-]] -은 듯] 하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만 문법적이고, 이를 [[[철수가 밥을 먹고], [(철수가) 떡을 먹은 듯하다]처럼 보면, 부적격하게 된다. 즉, (20다)가 적격한 문장인 것은, 단지 ‘철수가 밥도 먹은 듯하고 떡도 먹은 듯하다’로 해석될 때뿐이다. 결국 (20다, 라, 마)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는 접속문으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20바)의 부적격성이 이해된다. (20바)는 주어가 생략된 형용사문과 동사문의 접속문이므로, (20가)에서 본 것처럼 부적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등위접속 현상들에서도, ‘하-’를 접미사로 보아서는 특히 (19다)가 성립하는 것과 (20다, 라)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형용사로 보면,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5.5 상태성 강조

- (21) (가) 하늘빛이 누러하다.
- (나) 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한데, 키가 작다.
- (다) [영이는 [[[ e 얼굴도 예쁘고],[ e 마음씨도 곱고]] 한데], [ e 키가 작다]]

<sup>14</sup>이런 조건을 다는 이유는 ‘잘’ 등의 부사어가 개재하면 동사문과 형용사문의 등위접속이 가능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철수가 밥을 잘 먹고, 영이가 마음씨가 곱다.’같은 문장이 성립하는데, 아마도 그 부사어 ‘잘’이 선행절 전체를 ‘동작성’뿐 아니라 ‘상태성’도 갖게 해 주기 때문인 듯하다.

(21가)는 이현희(1985)에서 ‘하-’가 ‘상태성 강조’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누르다’보다는 ‘누러하다’에서 그 ‘누르-’의 어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21나)에서도 보인다. (21나)는 (21다)의 구조를 갖는데, 그 ‘하-’는 접미사일 수는 없고 형용사임이 분명하며, 등위접속된 절들의 내용 전체를 선행 요소로 하여 결합한 것이다. 이런 ‘하-’에는 전형적으로 강세가 놓이고, 그 바로 앞에 약간의 휴지가 개입하는데, 이로써 선행하는 절들의 내용 전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의 ‘하-’가 형용사로서의 단어이며, 또한 접속사 ‘하-’와 동일 형태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5.6 ‘어근 분리’

(22) (가) 꼬마가 침착도 하구나.(침착하구나)

이 정도면 자취생 방 치고는 깨끗만 하구먼.(깨끗하구먼)

(나) 내가 보기에 그 총각은 신사만 답더라.(신사답더라)

비취의 빛깔이 참으로 신비도 스럽구나.(신비스럽구나)

(다) \*그것 참 신비도 롭구나.(신비롭구나)

\*가소만 로운 소리 하지 말아라.(가소로운)

(라) \*그건 매우 웃도 으운 일이로구나.(우스운)

\*그리 믿도 어운 사람을 넌 왜 못 믿겠다는 거냐.(미더운)

(마) \*철수는 착도 하다.(착하다)

\*너 참 용도 하구나.(용하구나)

\*내가 너처럼 강만 하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강하다면)

\*밤이 실도 하게 열렸군.(실하게)

선행 성분이 ‘하-’와 분리되는 현상은 임홍빈(1979)에서 ‘어근 분리’ 현상이라고 命名되었다. 즉, (22가)의 서술어는 원래 ‘침착하다, 깨끗하다’라는 ‘어근 + 접미사’의 파생어인데 그 어근 성분인 ‘침착, 깨끗’ 등이 접미사(‘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의 ‘어근 분리’ 현상이 ‘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2나)에서처럼 ‘-답-’, ‘-스럽-’ 따위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근 분리’가 국어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접미사들은 그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파생명사나 파생부사 또는 파생동사(즉, 피동사와 사동사를 포함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동사)들은 그 어근(또는 어간)과 접미사(또는 마찬가지로 접두사) 사이엔, 분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형용사의 경우에도 몇몇 예들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롭-'은 '-답-', '-스럽-'과 함께 가장 활발히 파생 형용사를 생성하는 접미사이다. 그러나 '-답-', '-스럽-'과는 달리, 또한 '하-'와도 달리, (22다)에서처럼 '어근의 분리'를 보이지 않는다. (22라)에서처럼 '-읍-', '-업-' 등의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보통의 전형적인 파생 접미사들은 그 어근과 분리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하-'는 '-답-', '-스럽-'과 함께 그 선행 성분과의 사이에 주로 보조사를 개입시키는 분리를 허용한다. 이것은 단지 어근의 분리 현상으로 다루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원인을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2마)에서 보듯이, '착, 용, 강, 실' 등의 1음절 어근은 대체로 '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현재의 '어근 분리'라는 개념이 약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sup>15</sup>

우리의 견해는, 양보를 해서 '어근 분리'라고 해도, 어근과 접미사의 분리라기보다는 어근과 어근 사이의 분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어에는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것과 통사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sup>16</sup> 어근들이 분리되는 복합어들은 아마도 통사부에서 형성된 단어들이고,<sup>17</sup>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휘부에서 형성된 복합어들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렇게 볼 때에 '어근 분리' 현상과 (19 - 20)에서 본 등위 접속 현상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 모두는 통사부에서의 결합과 분할이라는, 유사하면서도 반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작동인 것이다. 물론 이런 우리의 견해에서도 '-스럽-' 등의 접미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계속 문제로 남는다. '-답-'은 김창섭(1984)에서 밝혀진 대로 명백히 구에 결합하는 통사부 접미사이므로 우리의 견해에 반증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 5.7 격과 의미역

'하-'를 형용사로 볼 때의 문제점의 하나로 그것이 주는 격과 의미역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김창섭(1994)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형용사문에는 주어만 나타나고, 주어는 주격을 요구하는데, Chomsky(1995) 등에서 보는 대로 주격은 절의 굴절소(INFL)가 준다고 보면 격의 문제는 해결된다. '듯하다'구문을 포함하여 형용사 '하-'가 쓰이는 문장에는 주어

<sup>15</sup>참되다, 헛되게, 앓되다' 등의 '되-'도 '어근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sup>16</sup>통사부에서의 단어 형성에 대한 것은 Baker(1988)과 고재설(1987, 1994), 그리고 시정근(1994) 참조. Shibatani & Kageyama(1988)에서는 PF에서의 복합어 형성을 주장한 바도 있다.

<sup>17</sup>'명사 + 하-' 복합동사들에 대하여, '어근 분리'로 설명한 임흥빈(1979)에 대한 비판과, 통사부에서의 복합어 형성으로 보아야 함은 고재설(1987)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보다 복잡한 문제는 의미역인데, '하-'를 형용사로 보면 그것은 대상역을 주어야 한다. 그 대상역은 물론 주어에 주어지는데, '덧하다'구문에서라면 많은 경우 공범주 주어가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살피기 위하여 공범주가 아닌 주어가 실현되는 강조구문을 보자.

(23) (가) 영이가 착하니?

\*응, 해.

(나) 영이가 건강·침착하니?

?응, 해.

(다) 영이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성격도 차분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하니?

응, 해.

(23)은 '하-'가 어휘부에서 복합어를 형성한 것이 명백한 것(가), 통사부에서 복합어를 이룬 듯한 것(나), 그리고 구를 그 선행요소로 하는 것들로 문답을 상정해 본 예들인데, (23가)는 부적격하고, (23나)는 어색하나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듯하고, (23다)는 적격한 듯하게 여겨진다.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를 단어로 보아 어휘부에서 복합어를 형성하기도 하고, 통사부에서 복합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고 본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3다)에서는 '하-'가 주는 의미역이 '영이'에 할당됨도 확인할 수 있다. 질문부에서는, '[얼굴도 ... 좋고]'가 의미역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대답부에서는 생략된 '영이'가 실현된 '해'로부터 대상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덧하다'의 '덧'을 의존명사로 본 우리의 견해 (5 - 6)은 아무런 문제에도 부딪히지 않는데, '덧'은 수식 관계에서는 명사적이거나 격과 의미역을 받을 수 없는 요소이고, '하-'는 격을 주지 않고, 의미역은 주어에만 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 6. 마무리

'하-'를 다룬 아직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어근에 결합하는 '하-'를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환경에 출현하는 '하-'도 그런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단어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의 속성 규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도 하고, 어쩌면 통사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이전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이기도 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논의는, '하-'

가 실현되는 문장의 통사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결과를 접속부사나 강조 구문 등에 쓰이는 '하-'에 적용하고, 단어 형성에 참가하는 '하-'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역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하-'를 형용사로 볼 수 있었으며, 그렇게 볼 때에 '하-'가 드러내는 다양한 형태적·통사적 현상들을 일관되고 유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어휘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았다. 물론 '하-'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고찰은 국어학의 이른 시기에 이미 거의 현재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는데, 박승빈(1935)에서의 용언의 어간에 관한 고찰이 그것이었다.

또한 형용사 '하-'를 하나의 단어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재설(1987)에서 고찰한 동사 '하-'와 많은 면에서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하-'와 형용사 '하-'가 서로 구분되는 것은 동사 '하-'는 동작성의 의미를 갖고, 따라서 목적어를 요구하는데, 형용사 '하-'는 상태 진술이라는 모든 형용사가 공통적으로 갖는 기능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확인시켜 주는 예가 바로 '뵈 하다'와 '뵈하다'였다.

## 참고 문헌

- 高永根. 1970. “現代國語의 準自立形式에 對한 研究 - 形式名詞를 中心으로 -,” 어학연구,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 高在高. 1987. “國語의 合成 動詞에 對한 研究,”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 高在高. 1994. “국어 單語 形成에서의 形態·統辭 原理에 對한 研究,”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 金倉燮. 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 金倉燮. 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朴勝彬. 1935. 朝鮮語學, 朝鮮語學研究會. 金敏洙의 편, 歷代韓國文法大系, 1-20. 탑출판사.
- 宋喆儀. 1989.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시정근. 1994.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沈在箕. 1982. 國語 語彙論. 집문당.
- 安明哲. 1983. “現代國語의 樣相研究,” 국어연구 56.
- 李崇寧. 198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 李賢熙. 1985. “‘하다’ 語辭의 性格에 對하여,” 한신대 논문집 2.
- 李熙昇. 1961. 國語 大辭典. 민중서관.
- 任洪彬. 1979. “用言의 語根 分離 現象에 對하여,” 언어, 4-2.
- 任洪彬. 1985. “國語의 ‘통사적인’ 空範疇에 對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 어학연구소.

44 고 재 설

崔鉉培. 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許 雄.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omsky, N.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MIT.

Halle,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 4-1.

Lieber, R. 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IULC.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Shibatani, M. & T. Kageyama. 1988. "Word Formation in a Modular Theory of  
Grammar : Postsyntactic Compound in Japanese," *Language*, 64-3.

전북 완주군 삼혜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국문과

565-701